

에디슨 한인 성당

Our Lady of Mercy Parish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He had to rise from the dead.

미사 안내

한국어 주일 미사 오전 11:30

영어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0:00

영어 토요일 미사 오후 4:00

평일 미사 (화) 오후 7:00

(수 - 금) 오전 9:00

Website www.edisonkcc.com

Email edisonkcc@gmail.com

성사 및 교리 안내

고백성사 미사 15분 전

혼인성사 6개월 전 신부님께 연락

유아세례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 또는 신부님께 신청

병자성사 신청서 작성 후 사무실 또는 신부님께 신청

예비자교리 매 주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 주일 오전 10:00 - 11:15

안내봉사

4월 자비의 모후 Pr. 5월 천상의 지혜 Pr.

친교봉사

4/21 부활 포장마차 4/28 사우스브런스익

성당 및 사무실 안내

성당 및 사무실 The Church of Our Lady of Mercy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 356-1037

근무시간 화 - 금 오전 10시 - 오후 3시

성직자 및 평협회장

주임신부 이담용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나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첸시오

복사

4/21 Christine Lee, Allison Lee

4/28 Allison Wong, Jin Park

전례 봉사자

일시	4/21	4/28
해설	백수정 수산나	김현걸 토마스아퀴나스
1독서	박정훈 베드로	이종권 베드로
2독서	김영준 제네시오	Brandon Lee
신자들의 기도	이화자 마틸다	이윤정 프란체스카
봉헌	백상현, 백용숙	유순재, 육글라라
성체분배	유용희, 오애희	이재성, 임문수

오늘의 성가

입 당	128	형제여 기뻐하라 알렐루야	성 체	499 152	만찬의 신비 오 지극한 신비여
봉 헌	220 510	생활한 제물 주님께 올리는 기도	파견	134	거룩하다 부활이여

말씀의 초대 **■** 베드로는 입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한다(제 1 독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한다(제 2 독서). 마리아 막달레나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믿는다(복음).

제 1 독서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0,34 1,37 1-43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8(117),1-2,16-17,22-23(◎ 24)



(후렴) 이 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이 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제 2 독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1-4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계	민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 환호송

1 코린 5,7,8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복음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까.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찻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겨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사지향**

연미사	생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명자(세실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한정숙(레지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성태영(바오로), 성용순(미카엘라)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명자(헬레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교식(야고보)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응호(알레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김준호(베드로)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이영주님의 영혼을 위하여 - 이은하 ▪ 정혜자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 이은숙(가브리엘라) ▪ 최진모(가브리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 요셉희 ▪ 친훈자(글라라)의 영혼을 위하여 - 이순재(마리아) ▪ 이동현(요셉)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 백경목(요셉)님의 영혼을 위하여 -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희(수산나) 빠른 회복을 위하여 - 수랏상 / 서 엘리사벳 ▪ 최기쁨, 밝음, 누리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 최 율리야나 ▪ 오경숙(세실리아) 자매님의 빠른 쾌유와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 노스에디슨 구역 ▪ 임영자(안나)의 무사한 수술과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 하용무(테레사)/민규란(엘리사벳) ▪ 하건철(안토니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가족

 **지난 주 우리의 정성**

KCC 주일 헌금	\$1,224.50	OLM 주일 헌금	\$3,871	미사 참례자 수	198 명
KCC 이차 헌금	\$493	OLM 이차 헌금	\$1,770		
교무금 (\$650)	정영옥(3-4)	나한복(4)	장문국(1-3)	이용문(4)	김삼식(3-4)
• 교무금, 개인 감사헌금,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헌금 - Payable to <i>Our Lady of Mercy</i> 또는 <i>OLM</i> (월, 세대주 이름 및 본명을 꼭 기입해 주십시오) - 교무금과 감사헌금은 봉헌함에 넣지 마시고 사무장에게 직접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체 소식

◆ 부활포장마차

- 일시: 4월 21일 (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 친목단체 주최로 부활 대축일 미사 후 포장마차를 개최하오니 전 신자 참석 및 이웃초대 부탁드립니다.

◆ 부활 달걀

- 주일학교에서 부활을 축하드리며 부활달걀을 아이들이 직접 교우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립니다. 미사 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에그헌팅

-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친교시간에 에그헌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지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2차 헌금

- 5/5 주일에는 미 원주민, 아프리카 미국인, 가톨릭 구호사업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견진성사

- 4월 26일 St. Joseph Church 에서 추해웅(오스틴), 백인혁(그레고리오), 이가현(카타리나)학생이 견진성사를 받습니다. 축하와 함께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19 Bishop's Annual Appeal

- 아직 2019년 Bishop's Annual Appeal 금액을 약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당입구에 비치된 봉투를 이용하여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 2019년 본당 할당금액은 \$35,000이며, 4월 12일까지 납부된 금액은 \$21,964.66(목표금액의 62.8%)입니다.
- 체크로 납부하실 경우 Diocese of Metuchen - Bishop's Annual Appeal 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신자등록서 배부

- 신자등록서 양식은 각 구역장님들을 통해 배부되고, 성당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4월 28일까지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4월 푸드콜렉션

- 푸드콜렉션이 4월 27일- 28일 양일간 있습니다. 가지고 오신 비 신선식품들은 성당입구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 올뜨레아(여성 제 37차) 피절

- 일시: 4월 25일(목) - 28일(일)
- 장소: 뉴저지 뉴튼 수도원

◆ 제 64차 맞춤형 성령세미나

- 일시: 4월 26일(금) - 28일(일)
- 장소: Marian Shrine Retreat House, New York
- 문의: 정 요세피나 (908-672-1515)

◆ Holy Name Society Spring Raffle

- 추첨 일시: 4월 27일(토) 오후 5시 15분
- Raffle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관리부분 봉사해주기로 하신 한광동(바오로)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 H마트 상품권

- 성모회에서 H마트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장인석 미카엘,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혜경 데레사,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 소공동체 소식

◆ 주일학교 교사 모임

- 일시: 4월 25일(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박락준 (베드로) 형제님 댁
- 주소: 2 Candle Lane, East Brunswick

◆ 구역장 월례회의

- 일시: 4월 28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회의실

◆ 시목회의

- 일시: 5월 5일(일) 미사 후
- 장소: 친교실 회의실

◆ 구역모임

- 이스트브런스윅
- 일시: 4월 27일(토) 저녁 7시
- 장소: 함철주 (안드레아) 형제님 댁

•썸머셋

- 일시: 4월 27일(토) 저녁 6시
- 장소: 유병기 (베네딕도) 형제님 댁

•에디슨

- 일시: 5월 5일(일) 친교 후
- 장소: 친교실

◆ 부활 삼중 기도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복음 묵상 나눔 질문

◎ 복음 나눔

내 마음에 다가온 성경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복음 안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 주시는지를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나눕니다

✕ 요한 20,1-9 (주님 부활 대축일)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요한 20,1)

1. 예수님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간절함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주님을 따르는 나의 사랑과 간절한 마음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요한 20,5)

2. 주님께 사랑 받던 제자 요한과 베드로가 부활의 현장에 도착합니다.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감격스러운 첫 순간을 베드로에게 양보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채움이 아니라 내어줌입니다. 내어주면서 기쁘고 행복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보고 믿었다.” (요한 20,9)

3.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의 믿음이 더없이 행복하지만, 보고 믿는 사람의 믿음 또한 소중한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을 느꼈던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WOW" 부활절 이다.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저리도록 아픈데, 아무리 강한 믿음으로 부활을 확신 하셨다고는 하지만, 온갖 학대와 고통 속에 십자가를 떠메고 가는 아드님 예수를 눈앞에서 지켜 볼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과연 어떠 하셨을까? 십자가에 못박혀 메달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고 결국 숨을 거두시는 아드님 예수, 그 광경을 지켜 보셔야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은 또한 어떠 하셨을까? 사람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그 분은 과연 부당한 학대와 열도당도 않은 모함에 대한 분노는 정말 전혀 없었던 것일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아우성치며 외치던 그들의 목소리가 지금의 나를 포함한 우리들 속에 아직도 있는건 아닐까? 이런저런 상념 속에 사순시기를 보내며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침묵의 기적을 기대하며 묵상을 시도해 보지만, 역시 시도하는 것으로 만족 해야하는 나의 믿음의 여정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것의 귀착인 "wow" 오늘은 신나는 부활절이다. 죽고 싶을 정도로 참담한 침묵의 고통 속에 지내시던 그 어머니가 믿음 속에서만 간직하던 부활의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의 그 기쁨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비록 그 믿음의 끝자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지만, 부활의 기쁨과 환희의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받을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오늘 부활절을 기쁘게 맞이하며 감사드립니다.

Happy Easter Everyone.